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5주년 봉축법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합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중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남 얻어야 대권"…2야 구애戰 돌입

## 국민의당, 광주서 중진회의…지도부 무안·전북 강행군

## 민주당, 오늘 DJ센터 호남비전위 회의·평동산단 방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구애'가 본격화됐다.

지난 4·13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키며 더불어민주당을 밀어내고 야권의 텃밭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최근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지지율 반등에 당력을 총결집하고 나섰다.

이에 더민주는 최근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텃밭 재탈환을 위한 시동을 거는 등 양 정당이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들어갔다.

국민의당은 26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내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하는 중진회의를 열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정동영·조배숙·주승용·유성엽·장병완 등 중진과 권은희·송기석·이동섭·황주홍 등 호남 지역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친박, 친문 등 패권주의 세력을 배제한 모든 민주개혁 중도세력의 중심이 되겠다"며 "호남이 계파 패권주의 희생양이 됐던 불행의 역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중진회의는 당내 3선 이상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최근 신설됐다.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다음달 15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현안과 관련한 당 메시지를 내는 회의체 역할을 한다. 당 비대위는 현역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원외인사만 남게 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중진회의와 기자간담회에 이어 무안군을 찾아 무안군수·군의원 입당 환영 및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추진·국비증액 설명회을 여는 등 지역에서의 국민의당 무게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어 전주를 방문, 기자간담회 이후 민주당 소속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당 당직자 및 고문단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여는 등 이날 하루 호남에서 강행군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직속으로 설치한 호남비전위원회 현장회의를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고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나선다.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 등 20여 명 이상의 매머드급으로 구성할 정도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양향자·김춘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개호·진선미·김태년·기동민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박혜자 전 의원, 안규백 사무총장, 최충민 제1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장회의에서 호남비전위원회 설명 및 성과보고 등을 가진 뒤 평동산단으로 자리를 옮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호남비전위원회를 통해 호남지역 예산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내준 '호남 1당'을 호남비전위원회를 발판으로 다시 탈환한다는 구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문재인 "결선투표 찬성…국회가 논의"

## 안철수·심상정, 정치개혁 위한 '8인 정치회의' 제안

야권 비문(非 문재인) 대선주자들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압박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저는 결선투표제 찬성이다"라며 "이번 대선에 곧바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건지 하는건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야권 대선주자로 이뤄진 '8인 정치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한 응답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결선투표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난 대선 당시 개선 사항으로 해석돼 제가 개헌을 공약하면서 그 제도를 포함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해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해 정치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참석하는 '8인 정치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와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당 김경록,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 전했다. 8인 정치회의는 지난달 20일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모인 회의를 일컫는다.

두 사람은 또 사회 전 분야 개혁과제를 신속 처리하고 정치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신속 처리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非文 개헌파 '3지대론' 주도권 잡기

## 연쇄 대규모 개헌 토론회…소극적인 文 압박

더불어민주당 비문(비문재인) 그룹이 주축이 된 개헌파들이 연쇄적으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개헌 주장을 자제해왔던 비주류 개헌파들이 다음 달 국회 개헌특위 출범을 앞두고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종걸·이상민·이춘석 등 민주당 의원 30명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가칭)'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축사하고,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개헌과 정치개혁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 후보들이 개헌 공약과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밝히고 대선 후 추진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개인적으로 독일형 의원내각제를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를 띄우고 이를 고리로 제3지대의 판을 키우려는 민주당 비주류의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개헌파 의원들은 최근 야권 선두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지도부가 당장 개헌을 논의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문 전 대표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27일에는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총 68명이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개헌을 논의한다. /임동욱기자 tuim@

# '속전속결' 비박 신당

## 오늘 의총 신당 방향성·정강정책 등 의논

## 원내대표 나경원·주호영 거론…내일 정책 토론회

탈이념 중도보수 성향의 신당 창당을 예고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탈당파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7일 오전에 탈당·분당을 선언하고 곧바로 교섭단체로 등록하기로 한데 이어 신당 창당 일자도 다음달 24일로 확정했다.

27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추대 여부와 신당의 방향성,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28일에는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토론회도 열기로 하는 등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병국 공동 창당추진위원장은 신당의 정강·정책과 관련, "탈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모두 모여 논의하고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28일 자체 안(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계 주자로 출마했다 낙선한 나경원 의원과 공동 창추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현재까지 27일 탈당 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은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3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1일 탈당을 결의했던 35명에는 못 미치지만 1월초에 2차 탈당이 이뤄지면 35명까지는 충분히 채울 것이라는 게 탈당파 의원들의 전망이다.

강석호·박순자 의원 등은 1월초 합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출당을 요구하며 조금 더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30명 안팎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탈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파의 고민은 새누리당과 차별화 문제다. 만약 정강·정책이나 지향점이 새누리당과 비슷한 경우 "그러려면 왜 탈당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안보와 대북 정책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그대로 지향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즉,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개성공단 폐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민생과 밀접한 교육·복지·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야당보다도 더욱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놔야만 신당이 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방향과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반기문 다음달 15일 귀국

## 측근 "새누리 입당 희박…여러 세력과 새정치 모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5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 측 한 관계자는 26일 국회 출입 일부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면 재임 중 도와줬던 분들께 인사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1월15일 귀국할 것"이라면서 "귀국 후 당장 기존 정당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귀국 후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면서 "반 총장이 '포용적 리더십'을 강조한 것처럼 여러 정치세력을 기둥 삼아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 총장의 다른 한 측근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돈을 줬다는 사람도 부인하고, 또 당시 정황상 불가능한 사실무근의 얘기"라면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는 데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반 총장의 측근은 "반 총장이 10년간의 국내 공백 기간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음해하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접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접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접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융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융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